

1. ④

‘지연(遲延)하다’는 ‘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늦추다.’의 의미이다. 따라서 ‘취소(取消)하다’를 사용해야 한다.

‘연장(延長)되다’는 ‘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본래보다 길게 늘어나다’의 의미이다. 따라서 ‘연기(延期)하다’또는 ‘변경(變更)되다’를 사용해야 한다.

① ‘금방(今方)’과 ‘방금(方今)’은 의미가 동일하나, ‘금방’은 ‘조금 후에’, ‘방금’은 ‘조금 전’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.

② ‘근본’은 ‘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’, ‘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’을 의미하고, ‘근간’은 ‘뿌리와 줄기’, ‘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’의 의미를 지닌다.

③ ‘타락(墮落)하다’는 ‘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다’의 의미로, ‘몰락(沒落)하다’는 ‘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어지다’, ‘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지다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.

2. ③

동사 ‘안되다’는 1. ‘일, 현상,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’예)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.

2. ‘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’예)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.

3. ‘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’ 예) 우리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.

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써도 되고, 붙여 써도 되지만 본용언 뒤에 보조사가 붙어있으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.

② ‘같이’가 조사이면 붙여 쓰고, 부사이면 띄어 써야 한다.

④ 의존명사 ‘-지’는 시간의 경과일 때에만 띄어쓴다.

3. ④

ㄹ. ‘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’는 목적어인 ‘할머니’를 높임 어휘‘모시고’로 높이고 있지만, ㄷ에서는 목적어인 ‘아이들을’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.

ㄱ. 할아버지께서는 노인정에 가셨습니다. 이 문장은 주격 조사 ‘-께서’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‘-시’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.

ㄴ.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. 이 문장은 주격 조사 ‘-께서’와 높임 어휘 ‘댁’, ‘계십니다’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.

4. ③

접미사 ‘-적’ 다음에 서술격 조사 ‘-이다’가 붙으면 명사이고, 띄어 쓴 다음에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, 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. ‘비교적’이 각각 ‘편리한’과 ‘낮은’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이다.

① ‘잘못이다’의 형태로 명사이고, ‘잘못’이 ‘적용하다’를 꾸며 주어 부사이다.

② ‘대로’가 관형어 ‘도착하는’뒤에 붙어 의존명사이고, 의존명사 ‘것’뒤에 붙은 ‘대로’는 조사이다.

④ ‘이’뒤에 조사가 붙지 않고, ‘사과’를 꾸며주니까 관형사이

고, ‘이’뒤에 조사 ‘보다’가 붙어 있으니 대명사이다.

5. ②

어로불변(魚魯不辨) :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. 유의어로는 목불식정(目不識丁), 숙맥불변(菽麥不辨), 일자무식(一字無識) 등이 있다.

① 권토중래(捲土重來) :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.

③ 오불관언(吾不關焉) :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.

④ 양두구육(羊頭狗肉) :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,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.

6. ①

‘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’, ‘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’에서 역설을 사용하였고, ‘난’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글을 전개하였다.

7. ③

시간적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 바꾼다는 말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, 시각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.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‘동짓달 기나긴 밤’을 ‘자르고, 넣었다가, 꺼리라’처럼 구체적,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

8. ③

‘휘두르다’는 ‘휘둘러’로 활용하고, ‘자른다’는 ‘잘라’로 활용하는 ㄹ뎨생김 ‘ㄹ’ 불규칙’이다.

① ‘누르니’는 ‘누르러’로 활용하는 ‘ㄹ’불규칙이고, ‘오르니’는 ‘올라’로 활용하는 ㄹ뎨생김 ‘ㄹ’ 불규칙’이다.

② ‘이르기는’은 ‘이르러’로 활용하는 ‘ㄹ’불규칙이고, ‘구르기’는 ‘굴러’로 활용하는 ㄹ뎨생김 ‘ㄹ’ 불규칙’이다.

④ ‘부른다’는 ‘불러’로 활용하는 ㄹ뎨생김 ‘ㄹ’ 불규칙’이이고, ‘푸르다’는 ‘푸르러’로 활용하는 ‘ㄹ’불규칙이다.

9. ④

네 번째 문단에서 ‘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,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재구성해보려고 한 것이지,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했다고는 하지 않았다.

①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②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③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10. ①

논의(論議) :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하다.

논거(論據) : 어떤 이론이나 논리, 논설 따위의 근거

논박(論駁) :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.

논제(論題) : 논설이나 논문,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.

11. ③

첫 번째 조건인 ‘공중도덕 지키기’는 ‘양보’가, 두 번째 조건인 ‘대구’는 ‘양보하는 한 자리’, ‘찾아오는 행복의 문’에 사용되었다. 세 번째 조건인 행위의 긍정적 효과의 비유적 표현은 ‘행복의 문’으로 표현되었다.

- ① 공중도덕의 내용만 들어가 있고, 나머지는 모두 없다.
- ② 공중도덕과 대구는 사용되었으나 ‘고문 장치’라는 부정적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.
- ④ 공중도덕의 내용만 들어가 있고, 나머지는 모두 없다.

12. ④

구개음화는 ‘ㄹ’모음에서만 일어나지만 형식형태소이어야만 하고, 하나의 형태소일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. 예) 홀이불[혼니불], 잔디[잔디], 디디다[디디다]

- ① 해돋이[해도지], 같이[가치]
- ② 표기와 소리가 같지 않으면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.
- ③ 조사, 접사 어미인 ‘ㄹ’모음이 와야 한다. 이것이 형식 형태소이다.

13. ①

채 : ‘미처’, ‘아직도’의 의미로 부사이다.

예)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. / 열다섯이 채 될까 말까 한 소녀였다.

채 : ‘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’의 의미로 의존 명사이다.

예)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간다. / 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.

- ② 한창 :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는 명사이고, 모양이면 부사이다.

예)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/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창이다. (명사)

예) 벼가 한창 무성하게 자란다. / 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고 있다. (부사)

한참 :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.

예) 한참 뒤 / 한참 동안 기다리다 / 그들은 폐허가 된 집터를 한참이나 둘러보았다.

- ③ 두껍다 : 1.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. 예) 두꺼운 이불
- 2.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. 예) 고객층이 두껍다
- 3. 어둡거나 안개, 그늘 따위가 짙다. 예) 두꺼운 그늘 / 안개가 두껍게 깔렸다.

두텁다 : 신의, 믿음, 관계,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.

예) 두터운 은혜 / 신앙이 두텁다 / 친분이 두텁다

- ④ 벗겨지다 : 1.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. 예) 신발이 꼭 끼어 잘 벗겨지지 않는다. / 때가 늘어붙어 잘 안 벗겨진다.
- 2. 사실이 밝혀져 죄나 누명 따위에서 벗어나다. 예) 죽어서야 자식들에 의해 오명이 벗겨졌다.

벗어지다 : 1.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

나가다. 예) 신발이 커서 자꾸 벗어진다.

- 2. 누명이나 죄 따위가 없어지다. 예) 누명이 벗어져 다행이다.
- 3.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. 예) 벗어진 이마 / 머리가 벗어진다.

14. ②

‘덜밥’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.

15. ②

이 글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지 고장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글이다. 따라서 ㉠은 삭제하면 안 된다.

- ① ‘인정하지만’ ‘우리 고장에는 안 된다’의 의미로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 적절하다.
- ③ ‘다름아니다’는 번역투의 문장으로 ‘지역 이기주의이다’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④ 문장의 주어가 ‘잊지 말아야 할 사실’로 명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술어도 명사형으로 끝나야 호응이 된다.

16. ④

‘~것이었다, ~같았다, ~없었다’ 등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은 틀리다. 이 글은 ‘나’의 관점이 들어난 주관적인 글이다.

- ① 안개를 ‘적군’, ‘여귀가 뿔어 내놓는 임김’으로 비유했다.
-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은 안개가 많이 낀다는 것이다.
- ③ 작품 속 ‘나’가 ‘나’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시점이다.

17. ②

본문에 “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”라고 했으므로 책은 중요하다는 것이다. 그리고 “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”라고 했으므로 독서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밝힌 글임을 알 수 있다.

18. ①

㉠에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‘역사의 연구’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‘즉’ 또는 ‘다시 말해’가 어울린다. ㉡에는 앞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‘가령’, ‘만약’이 어울린다. ㉢에는 앞 내용을 요약,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‘요컨대’, ‘결국’이 올 수 있다.

19. ②

이 시에서 ‘첫사랑’과 관련된 시어는 ‘산골 물소리’뿐이다. 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다. 이 시는 특정 어미인 ‘-것네’와 시어 ‘저것 봐’ 등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된다.

- ① ‘울음이 타는 강’에서 시각적인 ‘강’을 청각적인 ‘울음’으

- 로 표현하였다.
- ③ ‘물’과 ‘불’의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였다.
- ④ ‘나고나’, ‘보것네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20. ④

‘수레에 내려서 천천히 걸어갔다’고 나와 있을 뿐,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.

- ① ‘그 기미를 모르리오’, ‘어찌 당하랴’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(편집자적 논평)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② “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”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③ 길동이 ‘비 우(雨)’자를 써서 총구에 물을 채워 못 쏘게 한 것과, 죽지법을 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.